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엠바고 : 행사 종료 이후 보도 가능[대외협력비서관실 별도 공지] 배포 : 2023년 10월 4일(수)

윤석열 대통령, “여러분의 땀과 헌신을 국가의 이름으로 예우하고 기억할 것”

- 대통령 부부, 파독 근로 60주년을 맞아 조국을 위해 헌신한 파독 근로자 240여 명 초청 오찬 -
- 대통령, “재외동포청이 여러분의 든든한 울타리가 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챙길 것” -
- 대통령 부부, 파독 근로자 독일 현장 모습을 담은 사진 관람 -
- 파독 광부·간호사 출신 합창단 독일 및 우리 노래 공연 -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오늘(10/4, 수) 서울 위커힐 호텔에서 국내외 파독 광부·간호사·간호조무사 240여 명을 초청해 오찬을 함께했습니다.

대통령이 파독 근로자만을 초청해 오찬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이번 오찬 행사는 조국을 위해 자신을 희생한 동포들을 모국이 따듯하게 챙기고 보듬어야 한다는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것입니다.

오늘 오찬에 앞서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파독 근로자들의 독일 현장 모습을 담은 사진들을 관람하고, 참석자들과 단체 사진을 촬영하며 파독 근로자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대통령은 오찬을 시작하면서 “한독 수교 140주년이자 파독 근로 60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에 여러분을 모시게 되어 기쁘다” 며, “여러분의 땀과 헌신이 대한민국 산업화의 밑거름이었다” 고 참석자들에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대통령은 이어서 “여러분의 땀과 헌신을 국가의 이름으로 예우하고 기억할 것” 이라며, “지난 6월 출범한 재외동포청이 여러분의 든든한 울타리가 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챙기겠다” 고 말했습니다.

오늘 오찬 행사에서는 파독 출신 광부간호사들로 이루어진 ‘글뤽아우프 합창단’ 30명의 로렐라이, 보리수, 도라지 타령 노래 공연이 진행돼 행사의 의미를 더했습니다.

오늘 오찬 행사에는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이기철 재외동포청장, 강승규 시민사회수석,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 김석기 재외동포위원장 등 정부·국회 관계자 30여 명도 자리를 함께했습니다. <끝>